

야엘은 악녀인가 영웅인가?

-사사기 4-5장 연구-

박유미*

1. 들어가는 말

사사기 4-5장에 등장하는 야엘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나안의 대장인 시스라를 죽인 영웅으로 ‘바락의 영광이 여인의 손에 넘어 가겠다’는 드보라의 예언을 실현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이런 야엘을 ‘텐트에 거한 여인들 중에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찬사한다. 하지만 그동안 야엘은 해석자들에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배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야엘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들을 논의하고 내러티브 접근법을 통해서 야엘이란 인물을 묘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 야엘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들

야엘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 총신대학교 강사, 구약학

는 야엘이 ‘환대법을 깨뜨리고 속임수를 쓴 정직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것과 둘째는 ‘시스라와 성관계를 가진 부도덕한 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과 그들의 논거를 밝히고 이에 대해 반박하기로 하겠다.

2.1. 환대법과 정직성의 문제

환대법이란 여행자에게 식량과 잘 곳을 제공하고 여행객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으로 근동 지역의 관습법이다. 로빈슨, 헝스텐버그, 볼프, 클라인 등은 야엘을 시스라를 속이고 고대 근동의 불문율이며 신성한 관습인 환대법을 깨뜨린 여성으로 비난하였다.¹⁾ 이들은 이 환대법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법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신명기나 다른 본문에서도 환대법을 꼭 지켜야 할 성스러운 법으로 강조한 곳이 없다.²⁾ 특히 학자들이 환대법을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으로 여기서 롯과 기브아 노인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비류들이 손님을 내놓으라고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1) Oesterley and Robinson, *The History of Israel*, 1 (London: Oxford Univ. Press, 1932), 140. 그는 야엘의 행동은 배반이라고 하였다. E. W. Hengstenberg, *History of the Kingdom of God under the Old Testament*, 2 (Edinburgh: T&T Clack, 1872), 31; Logan, *Gender, Literary, Characterization and History: Re-Writing the stories of Deborah and Jezebel*, Ph. 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51; Wolf, *Judge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 F. E. Gaebelin,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2), 415; Klein,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JSOTsup. 68 (Sheffield: Almond Press, 1988), 42-43. 볼링은 오히려 야엘이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100.

2) 블록도 구약에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Block, *Judges, Ruth*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9), 537.

의 식구들을 내놓으려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 본문들에서 나타난 환대법의 수행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과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자기 성으로 들어온 손님을 따뜻하게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폭력을 가하려는 그 도시의 비류들의 행동을 통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딸과 아내는 가장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딸과 아내를 폭도들에게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삿 19:24)고 말하며 내놓은 행위는 롯이나 레위인이 그들이 더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사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며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몰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이다.

율법에서는 딸을 처녀로 지켜서 시집보내야 하는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신 22:13-21)과 아내의 간통에 대해 엄격한 것(민 5:11-31; 신 22:22) 등 성윤리는 엄격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남편은 딸과 아내의 정절을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창 18:1-10)의 예를 보면 환대법은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는 일반적인 전통이며 미풍양속으로 여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율법에서 환대법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대의 전통을 성경의 율법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야엘을 성스러운 법을 깨뜨린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야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관점은 사사기 5:24에서 야엘을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튜는 환대법은 기본적으로 남자 주인이 행하는 것으로 시스라가 야엘을 찾아간 것 자체가 야엘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며 야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스라를 죽였다고 하여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을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하였다.³⁾

하지만 매튜의 해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첫째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의도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철저히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단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행동만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의 화자가 야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엘의 의도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넘어선 해석이다.

둘째는 야엘이 전혀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불러들였다는 것이다.⁴⁾ 남성이 찾아오는 것이 상대방을 죽일 만큼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면 시스라가 자신의 텐트 근처로 왔을 때 야엘은 텐트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삿 4:18)라고 하며 시스라를 불러들여 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야엘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초대한다. 그러므로 야엘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환대법을 어긴 시스라를 죽였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클라인의 경우 야엘이 시스라를 속여서 죽인 것을 교활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침묵하셨다고 주장한다.⁵⁾ 하지만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속임수’라고 부르지 않고 ‘전술’이라고 부른다. 즉, 야엘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덫을 놓고 덫에 걸린 시스라를 죽인 것이다. 이런 방법은 드보라 바로 앞의 사사인 에훤도 사용하였다. 에훤은 에글론 왕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를 은밀한 방으로 데려간 뒤 거기서 숨겨준 칼로 죽이고 조용히 나온다.⁶⁾ 그 외에도 성경

3)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TB* 21 (1991), 15-20.

4)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5) Klein,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BTB* 21 (1991), 43.

6) Block은 야엘과 에훤의 이야기의 동일성을 7가지로 기술하였다. a. 하나님의 손의 부재 b. 개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춤 c. 희생자를 얻기 위해 매우 겸손한 위치에서 말을 함. d. 배반과 속임의 모티프 e. 살인과 발견의 순서 f. 들어감과 발견의

에는 속임의 예가 많이 나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 동족인 여리고 군사들을 속였고(수 2:3-5), 미갈은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속였고(삼상 19:11-17) 다윗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고 정신병자 흉내를 냈고 아기스를 속이고 몰래 이스라엘을 돕는 일들을 한다(삼상 29-30 장). 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도운 것을 칭찬한다. 국가적 전쟁의 차원에서도 아이 성 전투의 경우 뒤에 군사를 매복해 두고 적은 수의 부대가 성문 앞에서 적을 격동시킨 후 도망치는 것처럼 후퇴하였고 이에 속은 아이 성의 군대가 성문을 열고 쫓아 나오자 매복한 군사들이 빈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해 버린다(수 8:1-29). 이것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전술이지만 이 전술 자체가 속임수이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비열한 전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아이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맛기도 전투도 ‘여호와와의 전쟁’이고 시스라라는 가나안 군대의 장관으로 여호와와의 적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적인 시스라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안심시키고 죽여 야엘은 가장 효과적으로 여호와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적장을 죽인 것이다. 야엘의 행동에 대해 박윤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야엘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⁷⁾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노래에서 여호와와의 편에 서서 적장을 죽인 야엘을 축복하고 칭찬하였다.

2.2. 성적 해석의 문제

야엘의 평가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야엘이 시스라를 대접한 것을 성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랍비들과 슈도-필로

순서. Block, *Judges, Ruth*, 107.

7) 박윤선, 『성경주석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서울: 영음사, 1976), 212.

등 고대의 해석자들로부터 밭, 아시스, 라이즈, 자코비치, 니디치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해석이다. 미드라쉬에서는 그녀를 할라카를 아는 영웅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⁸⁾ 몇몇 랍비들은 그녀가 시스라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전제한다.⁹⁾ 슈도-필로는 야엘은 몸치장을 하고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초대하기 위해 나갔고 시스라가 텐트에 들어섰을 때 침대에는 장미가 뿌려져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엘이 구해 준다면 야엘을 아내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¹⁰⁾ 최근에 라이즈는 야엘은 시스라와 세 번의 성관계를 갖고 또 바락과 성관계를 한 매우 문란한 여성으로 해석하였다.¹¹⁾

야엘의 행동을 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근거는 첫째로 ‘돌이키다’(הָרָחַץ)는 단어가 성적 초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¹²⁾ 라이즈는 잠언

8) Bronner, “Valorized or Vilified?: The Women of Judges in Midrashic Sources,”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Judg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1.

9) 하지만 그러한 행동도 시스라를 죽이기 위한 행동이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법을 한 것은 아무 의도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칭찬할 만하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브로너는 랍비들은 야엘이 매우 유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ronner, “Valorized or Vilified?: The Women of Judges in Midrashic Sources,” 90.

10) 또한 슈도 필로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G. A. Yee,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21.

11) Reis, “Uncovering Jael and Sisera: A New Reading,” *JSOT* 19 (2005), 36.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동사들을 보면 바락은 들어가자마자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화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히네’를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끊고 시스라가 죽어있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준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라이즈가 주장한 것처럼 바락과 야엘의 성적인 행위를 짐작하게 할 만한 상황이나 본문적인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2) 라이즈는 더 나아가 성경에서 서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사적인 장소에 있는 것은 단지 성관계를 할 때뿐이라고 하였지만 Fewell과 Gunn은 성경에서 남성이 성적 관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예는 극히 드물지만 이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하였다. Reis, “Uncovering Jael and Sisera: A New

7:7-27과 연결하여 볼 때 아엘이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불러들이는 것은 시스라와 독자들에게 성적인 초대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였다.¹³⁾ 하지만 ‘돌이키다’(הָפַק)라는 단어가 구약 본문에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돌이키다’는 단어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보다는 ‘텐트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접미어와 같이 사용되어 ‘그녀의 텐트 쪽으로 방향을 돌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된다. 라이즈가 예로든 잠언 7:7-27보다는 창세기 19:2에서 롯이 천사들을 초청할 때나 롯기 4:1에서 보아스가 지나가던 기업 무를 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현재 구문의 더 좋은 병행 구절의 예로¹⁴⁾ 모두 상대방을 부를 때에 ‘הָפַק’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성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내러티브에서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물 대신 우유를 준다거나 말뚝이 꿰뚫었다거나 드보라의 노래에서 드보라의 발 사이에 있거나, 시스라가 누워있다는 표현들은 모두 시스라와 아엘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하지만 사사기 4장처럼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러티브는 사실적 묘사를 주로 한다. 그리고 특히, 성적인 관계를 서술할 때는 본문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한 후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다.¹⁶⁾ 예를 들어 창세기 19:34의 경우

Reading,” 26-27; Fewell & Gunn “Controlling Perspectives: Women, Men, and the Authority of Violence in Judges 4 & 5,” *JAAR* 58 (1990), 392.

13) Reis, “Uncovering Jael and Sisera: A New Reading,” 27. 하지만 잠언 7:7-27에는 음녀가 청년을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혹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돌이키다’(הָפַק)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14)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창 19:2, 『개역』),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הָפַק)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롯 4:1, 『개역』).

15) 우유를 주는 행위에 대해 자코비치는 성적인 초대로 보았고 26-27절은 성행위로 해석하였다. Y. von Zakovitch, “Sisseras Tod,” *ZAW* 93 (1981), 364-374; S. Niditch, “Eroticism and Death in the Tale of Jael,” *Gender &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P. L. Day,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43-57; Block, *Judges, Ruth*, 210.

16) 레위기 18:20, 22.

“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כָּסַף)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동침’이란 단어에 대해 앞 뒤 본문에서 자식을 갖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⁷⁾ 그리고 담요를 덮어줄 때 사용되는 ‘כָּסַף’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숨기다’나 ‘~위를 덮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 단어가 구약 본문 안에서 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다만 룻기 3:9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¹⁸⁾라는 구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뒤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적인 의미는 모두 문맥에서 결정되는 것들이지 위에 언급된 단어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 대신 우유를 준 것도 성적인 해석보다는 좀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을 주어 안심시키고 수면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황상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성적인 해석의 밑바탕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남성이 여성의 텐트에 들어가는 것은 성적인 관계일 때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여성인 야엘이 남성이며 장군인 시스라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계를 통해 안심하고 지치게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는 성적 관계를 위해 텐트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정황들을 설명한 후에 ‘여성의 텐트’나 ‘여성에게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⁹⁾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위해 들어갔다는 정황적 설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황적으로 시스라는 바락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비록 야엘의 호의로 일단 숨기는 하였지만 바락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고 야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리고 시스라도 잠들기 전에 야엘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령하

17) 창세기 19:35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18)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피다”(כָּסַף)이다.

19) 창세기 24:67; 29:23,30; 30:16; 38:8; 38:16.

고 또 누군가 자신을 찾으려 없다고 말하라고 당부한 것을 보면 바락의 추격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삿 4:20). 이런 시스라의 행동을 보건대 생명의 위협도 무시하고 성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내러티브의 화자는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인 아엘을 믿고 그녀를 따라 그녀의 텐트로 들어간 정황을 ‘하솔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삿 4:17)한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화자의 설명을 무시하고 성적 관계를 위해 텐트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스라가 지쳐 잠이 든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본문에 등장하는 시스라는 전쟁터의 아비규환 속에서 병거도 말도 잃고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와 걸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이다. 웨어웰과 건은 시스라가 너무 지쳐서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고 하였고²⁰⁾ 매튜도 그가 “금지된 영역인 아엘의 텐트에 들어갔을 때 성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²¹⁾라고 하여 그의 상태가 매우 지쳐 있으며 성적 관계를 갖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²²⁾ 비록 시스라가 건장한 남성이지만 지금은 오랜 도망으로 지쳐있는 상태이고 아엘이 준 담요와 우유는 그를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다. 담요는 따뜻함과 안전한 느낌을 주고 우유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잠들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본문을 성적으로 해석하고 아엘을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문의 정황적 지지를 받지

20) Fewell and Gunn, “Controlling Perspectives: Women, Men, and the Authority of Violence in Judges 4 & 5,” 393.

21)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21.

22) 이에 대해 라이즈는 “작가들이 적군이 너무 지쳐서 성관계를 못하는 것으로 그리려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성적인 강간범들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면서 시스라를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가진 인물로 보았다. Reis, “Uncovering Jael and Sisera: A New Reading,” 28.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본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으로 평가된다.

3. 야엘의 인물 묘사

3.1. 사사기 4장에서의 야엘

야엘은 드보라 내러티브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로 사사기 4:17에서 처음 소개된다. 17절의 상황은 시스라가 므깃도 전쟁에서 바락의 군대에게 패하고 혼자 도보로 도망하고 있으며 바락은 그를 잡기 위해 그의 고향인 하로셋학고임까지 추적하여 그의 남은 병사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스라는 바락이 간 하로셋학고임과는 반대방향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텐트가 있는 사아난님에 등장한다.²³⁾ 그 이유에 대해 화자는 헤벨이 겐 사람으로 하술의 왕과 화평한 관계에²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야엘의 텐트로 도망하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야엘이 처음 등장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 소개된다. 새로운 여성인 야엘의 등장은 청중들에게 기대감을 주게 된다. 왜냐하

23) 참조, Rainey &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tra, 2006), 138. 두 지역은 다볼산을 중심으로 하로셋학고임은 남서쪽에 위치하고 사아난님 상수리나무는 동쪽에 위치한다.

24) 화평(shalom)에 대해 소긴은 단순히 갈등의 부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호관계 혹은 완벽한 동맹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조, Soggin, *Judges*, OTL, J. Bowden, trans. (London: SCM Press, 1987), 106. 하지만 린다스는 시스라와 헤벨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보았고 그러므로 야엘이 환대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참조, Lindars, *Judges 1-5: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A. D. H. Mayes, ed. (Edinburgh: T. & T. Clark, 1995), 197. 화평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전쟁이 없는 상황, 전쟁을 하지 않는 중립적 상황이며 그 용례도 주로 이런 경우에만 나온다. 그러므로 소긴처럼 화평을 완벽한 동맹으로 보는 것은 샬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 시스라를 여성의 손에 과실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을 청중들은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엘을 소개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는 칭호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을 소개할 때 사용되며 그녀의 소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외에 그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다.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의 고향이나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 남편, 아들의 고향이나 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대신한다.²⁵⁾ 즉, 일반적으로 여성은 언급된 남성의 고향을 따르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이 소속된 남성과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여성의 출신지가 언급이 된다.²⁶⁾ 그러므로 야엘을 이스라엘 사람이²⁷⁾ 아닌 겐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통적으로 겐 사람은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고 사사기 1:16에 의하면 유다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인 하솔 왕과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헤벨이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편에 붙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시스라가 왜 헤벨의 텐트가 아닌 야엘의 텐트로 도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본문에 나오질 않는다. 환대법은 성경에서 보통 남성 주인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²⁸⁾ 여기서 시스라는 여성인 야엘의 텐트로

25) 일반적으로는 갈렙의 딸 약사(삿 1:12),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삿 13:2), 베들레헬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룻 1:2),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삼상 1:1-2), 갈렙 족속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삼상 25:3) 등으로 소개된다.

26) 모압 여성 룻(룻 1:4),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삿 16:4), 여리고의 기생 라합(수 2:1) 등.

27) 클라인은 야엘을 이스라엘 여자로 생각하고 그녀는 남편보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다고 평가한다. Klein,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43.

28) 매튜스는 환대법은 남성 주인이 베푸는 것으로 시스라가 헤벨이 아니라 야엘의 텐트에 간 것은 헤벨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시스라가 먼저 환대법을 어겼고 야엘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본다. 참고,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13-21.

간 것이다. 다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은 시스라의 도망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야엘의 행동과 말은 18절부터 나오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야엘은 텐트를 나가서, 시스라를 부르고, 말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화자는 야엘의 말을 직접화법으로 말하여 야엘이 시스라를 초대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의 텐트로 온 시스라를 향하여 “들어오소서 나의 주여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라고 말한다. 여기서 “들어오소서”(הִיבֹּט)는 청유형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던 사람을 초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야엘은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청하고 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안심의 말도 하는데 ‘두려워 말라’(אַל תִּירָא)는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말이다.²⁹⁾ 구약의 예를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며(예, 창 15:1; 창 26:24; 수 8:1; 수 10:8; 수 11:6; 삿 6:23 등) 모세가 백성들에게, 혹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등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한다(출 14:13³⁰⁾; 창 43:23; 삼상 22:23; 삼하 9:7 등). 하지만 성경에서 약자인 여성이 이 말을 하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한 예이다. 그러므로 야엘이 여기서 “두려워 말라”고 말하므로 야엘과 시스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야엘에게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남녀 역할의 상황에서 보면 남성이며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무력과 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이며 가정주부인 야엘보다는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야엘의 “두려워 말라”는 말을 통해 이 장면에서는 야엘이 도망하는 군대 장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성 역할의 역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야엘은 도망 중인 시스라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그에게 가장

29) 모세가 그 백성에게(출 14:13), 요셉의 문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창 43:23), 다윗이 아비아달에게(삼상 22:23), 다윗이 므비보셋에게(삼하 9:7).

30) 오코넬은 이 구문이 출애굽기 14장과 사사기 4장에 나오므로 모세와 야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아이러니를 강화한다고 지적하였다.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E. J. Brill, 1996), 137.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말로 그를 설득하고 있다. 도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도피처와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청을 받은 시스라는 텐트로 들어가는데 야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도 ‘הָרַחַם’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시스라가 들어오자 야엘은 이불로 그를 덮어준다. 이것은 이중적 보호로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일차적 보호이고 다시 이불을 덮어 더 완벽하게 시스라를 숨겨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불을 덮은 행위에 대해 블록은 다음 단계의 행동의 소음을 죽이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였고³¹⁾ 린다스도 야엘이 시스라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³²⁾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³³⁾

이렇게 야엘의 말을 따르던 시스라는 물을 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야엘의 행동을 통해 시스라가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시스라는 야엘에게 정중한 청유형(שָׁאַל)으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런 정중한 표현은 야엘과 시스라의 관계에서 야엘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야엘은 물을 달라는 요청에 물이 아닌 우유를 시스라에게 준다. 시스라가 요청한 물은 단순히 목마름만을 해결하지만 우유는 영양까지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야엘은 시스라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하므로 더욱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야엘은 시스라를 덮어준다. 많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야엘이 우유를 주고 덮어주는 행위는 어머니가 아이를 극진히 돌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³⁴⁾

31) Block, *Judges, Ruth*, 206.

32) Lindars, *Judges 1-5*, 198.

33) 슈나이더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다. Schneider, *Judges*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79.

34)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8), 212-213; Matthews, *Judge and Ruth* (New York:

야엘이 정성스럽게 돌보자 정중하던 시스라의 태도가 변한다. 20절에서 시스라는 야엘에게 텐트 문에서 있고 만약 사람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하라고 명령을 한다. ‘서 있어라’(תִּישָׁר)는 2인칭 남성 명령형으로 여성인 야엘에게 하는 말로는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다.³⁵⁾ 볼링은 부정사 절대형이 명령을 나타내는 예라고 보았고³⁶⁾ 슈나이더는 시스라가 잠에 빠지면서 비몽사몽간에 한 말로 피곤에 지친 장군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³⁷⁾ 하지만 화자가 고의적으로 남성 2인칭 명령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시스라는 야엘의 극진한 태도에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던 모습을 버리고 야엘을 부하 취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시스라의 태도의 변화는 명령어의 어투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야엘을 그의 부하 다루듯이 자신이 쉬는 동안 텐트 문 밖에서 보초를 서 있으라고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부하를 다루는 장군으로서는 적절한 행동이지만 화자의 지적처럼 “손님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³⁸⁾ 그리고 시스라가 야엘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령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시스라가 완전히 야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누가 와서 “사람(남자)가 있느냐”고 질문하면 “없다”라고 대답하라는 말은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바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야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알려준 것이지만 야엘은 후에 시스라를 죽여 그를 정말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시스라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아이러니로 시스라는 바락에게 잡혀 죽는

Cambridge Univ. Press, 2004), 72; Pressler, *Joshua, Judges and Ruth*,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65. 이런 행위를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의 인물화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5) 하지만 본문 비평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36) Boling, *Judges*, AB (Garden City: Doubleday, 1975), 98.

37) Schneider, *Judges*, 80.

38) Fager, “Chaos and The Deborah Tradition,” *QR* 13 (1993), 27.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말을 부탁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야엘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도와주던 야엘은 시스라가 잠들자 갑자기 텐트 말뚝을 잡고 손에 망치를 들고 시스라에게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죽였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야엘이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주는데 첫째는 19절까지 극진하게 시스라를 돌보던 모습에서 돌변하여 갑자기 시스라를 죽이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화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5장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³⁹⁾ 그 어느 것도 본문의 정확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 화자는 야엘의 내면적 심리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제한하고 단지 야엘의 행동만을 관찰자로 이야기하는 외부 초점자의 위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4장 전체가 이런 외부 초점자의 위치에서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드보라나 바락이나 시스라의 생각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된다. 비록 야엘도 말을 하였다. 하지만 야엘의 경우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도 야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야엘은 다만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낼 뿐이다. 그녀는 도망 온 시스라를 자신의 텐트로 초대하여 안심하게 만든 후 그를 장막 말뚝으로 죽인 것이다.

야엘의 내러티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야엘은 처음부터 전쟁의

39) Fewell & Gunn은 시스라를 숨겨주면 이스라엘군이 가족을 죽일 것이므로 가족을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였고 스택은 야엘을 이스라엘 여성으로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본다. 그레이와 매튜는 야엘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인 것이라고 하였고 발은 야엘이 정치적 종교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남편의 정치적 문제에 묶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D. N. Fewell & D. M. Gunn, "Controlling Perspectives: Women, Men, and the Authority of Violence in Judges 4 & 5," 124; 존 스택, 『구약 신학: 본문과 해석』,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360; J. Gray, *Joshua, Judges and Ruth*, NCBC (Grand Rapid: Eerdmans, 1986), 259; V. H.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16; M. Bal, *Murder and Difference*, 60.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시스라가 자신의 텐트로 오게 될 것을 알고 시스라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텐트로 불러들이고 그에게 우유를 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등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행동을 한 뒤 지체 없이 시스라를 죽인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볼 때 야엘의 행동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바락이 도착했을 때도 야엘은 정확히 바락이 시스라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찾는 자를 보여주겠다고 그를 텐트 안으로 인도한다. 이런 정황적 근거로 볼 때 야엘은 전쟁에서 가나안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고 시스라가 자신의 텐트로 왔을 때 자신이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겠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문의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나 보다는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성의 손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다. 아시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기법은 드보라의 예언에 독자들이 초점을 맞추게 하며 이 본문에서 야엘의 역할은 드보라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것이다.⁴⁰⁾ 야엘이 어떤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든 그녀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드러낼 생각이 없는 야엘의 의도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그 추측을 가지고 야엘을 비난, 옹호하는 것은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한 것이다. 야엘은 21절에서 다시 헤벨의 아내로 소개된다. 이것은 화자가 고의적으로 넣은 명칭으로 17절에서 헤벨의 아내로 소개할 때 헤벨과 하술 왕과는 평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야엘을 헤벨의 아내라고 부를 때 독자들은 헤벨과 하술 왕과

40) E. Assis, "The Choice to serve God and assist his People: Rahab and Yael," *Biblica* 85 (2004), 89.

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장치들은 21절의 야엘의 행동을 더욱 충격적으로 보이는 기능을 한다. 즉, 남편의 입장을 따르다면 시스라에게 폭력을 가하면 안 되는 야엘이 갑자기 시스라를 죽인 것이다. 여기서 야엘은 그녀의 남편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묘사된 것이다. 이런 야엘의 모습은 남편 나발과는 반대되게 행동한 아비가일의 모습과 유사하다. 21절은 이야기 시간과 서사의 시간이 거의 같은 장면적 부분으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즉, 야엘이 말뚝과 망치를 잡는 장면, 시스라에게 다가가는 장면, 말뚝을 박는 장면,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 땅에 박히는 장면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묘사되고 있다. 이런 장면적 묘사는 사건의 절정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 장면이 4장 내러티브의 절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 땅에 박힐 정도로 세고 단호하게 망치질하고 있다. 이런 단호한 야엘의 행동은 그녀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낸다.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며 드보라의 도움을 구하던 바락과는 대조적으로 야엘은 매우 용감하고 결단성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야엘의 이런 치밀하고 단호하며 용감한 성격은 바락을 만날 때도 계속되고 있다. 22절에서 ‘그때에’(וּבַיּוֹם)란 말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시간과 바락이 나타난 시간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기 위한 장면 전환의 표시이다. 즉, 내러티브를 매우ダイナ믹하게 만들기 위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자마자 하로셋까지 시스라의 군대를 쫓아 갔던 바락을 바로 야엘의 텐트 앞에 등장시킨 것으로 둘로 분리되었던 전쟁이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다.

22절에서도 주도권은 야엘에게 있다. 야엘은 시스라 때와 마찬가지로 텐트 밖으로 나와 바락을 불렀고 “내가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야엘의 이 말은 그녀가 전쟁의 전체 상황과 바락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야엘의 말에

바락은 시스라처럼 그녀에게로 갔고 거기서 그는 장막 말뚝에 죽어 있는 시스라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 또다시 “그때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앞과는 다른 기능으로 바락의 관점에서 시스라의 죽음을 발견할 때 갖는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장막 말뚝은 시스라가 자고 있거나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야엘에게 살해당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락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야엘이 시스라와 바락이라는 두 장군을 부끄럽게 한 곳으로 첫째, 바락의 경우는 그가 죽이고 싶어하는 시스라를 야엘이 한 발 앞서 죽이고 그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바락은 그 순간 드보라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된 자신의 주저하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바락의 역할은 어떻게 영광이 자신의 손을 떠나 여성의 손으로 넘어 갔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로, 야엘은 시스라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시스라가 여성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다. 남성이 그것도 장군이 여성의 손에 죽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한 수치이다. 그래서 사사기 9:54에서 아비멜렉도 옆의 시중에게 여성의 손에 죽는 수치를 면하게 직접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야엘이 바락에게 시스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은 완전히 시스라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라에 대한 조롱이다. 시스라는 분명히 “찾는 사람이 오면 없다고 하라”고 하였는데 야엘은 “찾는 사람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므로 고의적으로 시스라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두 장군을 부끄럽게 한 상황에 대해 머레이는 시스라만 죽어서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락도 한 마디 말도 못하므로 없는 사람과 같이 취급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시스라의 도망과 바락의 추적을 비교하였는데 둘 다 도보로 왔고 둘 다 야엘의 텐트로 초대를 받았고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들어왔으나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찾았다.⁴¹⁾ 이렇게 사사기 4장에서의 야엘은 단호하

41) Murray, “Narrative Structure And Technique in the Deborah-Barak Story(Judges

고 용감하게 시스라를 죽여 드보라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엘은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만을 보여준 드보라와 달리 책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숨기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내러티브의 전반부를 드보라가 주도하였다면 후반부는 아엘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엘은 역동적인 영웅으로서 드보라의 훌륭한 파트너의 역할을 하였다.

3.2. 사사기 5장에서의 아엘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현재 주어진 본문의 내러티브 구조로 보았을 때 사사기 4-5장의 드보라 내러티브 안에 등장 인물인 드보라가 하는 노래이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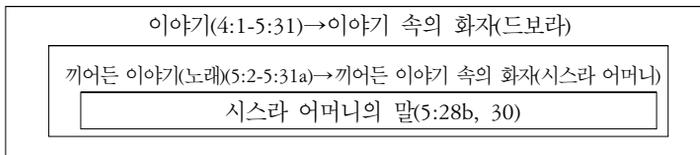
노래에서는 아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준 것과 시스라를 죽인 것을 제외하고는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나머지 정보는 모두 생략이 되어 있다. 하지만 아엘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평가가 없는 내러티브와는 다르게 아엘을 텐트에 거하는 여인들 중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아엘에 대한 축복은 메로스에 대한 저주와 짝을 이루어 나오는데 23절에서 여호와를 돕기 위해 오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한 드보라는

IV 4-22),” Emerton,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 30 (Leiden: E. J. Brill, 1979), 183.

42)

이야기 밖의 화자



24절에서 야엘을 축복하고 있다. 24절의 구문을 보면 2행의 야엘의 이름을 중심으로 1행과 3행이 교차 대구를 이루어 야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⁴³⁾ 3행은 1행에 나온 단어를 어순을 뒤바뀌 반복하였고 그 가운데 ‘텐트에’를 첨가시켜 1행의 일반적인 여성들을 텐트의 여성들로 한정시켰다. 노래에서는 야엘을 드보라와 같은 사사나 바락과 같은 장군도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왕비도 아닌 그냥 텐트에 거하며 살림을 하던 평범한 여성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평범한 여성이 가장 축복 받는 여성이 된 것이다. 히브리어 ‘מְנַחֵם’에서 접두 전치사 ‘מִן’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비교의 대상 없이 일반적인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⁴⁴⁾ 그리고 ‘복을 받으라’(קַבְּלִי בְרָכָה)는 24절의 맨 앞과 맨 뒤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야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드보라의 노래 전체에서 ‘קַבְּלִי’란 단어가 모두 3번 나온다. 두 번은 여호와께 사용되어 피엘형으로 ‘찬양하라’(קַבְּלִי בְרָכָה)로 해석되었고 마지막 한 번이 야엘에게 사용되어 ‘복 받으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야엘이 여호와와 함께 가나안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야엘을 축복하는 이유는 26-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드보라의 노래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장면과 시스라가 죽는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장면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6절에서 보면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수고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야엘이 망치질을 할 때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과정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다.⁴⁵⁾

43) 복을 받아라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여

장막에 있는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복을 받아라(사역)

44) 참조, Walke &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214.

3행에서 5행으로 진행하면서 시스라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관자놀이로 야엘이 친 부위가 구체화 되고 있다. 그리고 야엘의 공격의 정도도 친 것에서 부수고 치는 것으로 그 다음은 꿰뚫는 것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즉, 3행에서 5행으로 진행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시스라를 치면서 한 번 칠 때마다 시스라에 대한 타격이 점점 거세져서 장막 말뚝이 두개골을 부수고 결국은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이는 장면을 자세히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의 사용과 연속적인 행동들은 야엘의 영웅적인 행동을 청중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귓가에 망치 소리⁴⁶⁾가 들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부수다”, “치다”, “꿰뚫다”의 단어들은 시편에서 주로 전투적 용어로 사용되는데 김정우는 “짜르다”, “뚫다”, “치다”, “깨뜨리다”, “부수다”, “박살을 내다” 등의 동사들이 하나님께서 라합과 전쟁을 할 때 나타나는 단어들이라고 지적하였다.⁴⁷⁾ 이렇게 볼 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인 라합을 죽이는 장면과 유비를 갖는다. 이런 유비를 통해서 볼 때 야엘의 행동은 단지 한 남성 장군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적인 원수를 죽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27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그는 그녀의 발 사이에 꾸부러지고 옆드러지고 쓰러졌다
 그는 그녀의 발 사이에 꾸부러지고 옆드러지고
 꾸부러진 바로 그 곳에서 옆드러지고 죽었도다

여기서 ‘꾸부러지고 옆드러지고’라는 단어를 각 행에 한 번씩 사용하여 세 번이나 반복하여 시스라가 쓰러지는 장면을 세 번이나 반복적

45) 볼프는 이런 야엘의 행동을 노련한 궁수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조, Wolf, *Judges*, 415.

46) ‘망치’(מַחֲזֵק)는 22절에서 ‘땅이 울리다’(מַחֲזֵק)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로 야엘의 망치 소리는 22절의 말들의 도망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47)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122-123.

으로 보여주고 있다.⁴⁸⁾ 이 부분은 구약 본문 중에서 대표적인 점층적 반복법의 예로 시스라의 죽는 장면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다 마지막에 ‘죽었다’를 말하여 청중들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로 긴장을 환희로 바꾸는 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꾸부러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해가는 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추락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 그리고 그가 추락한 곳은 ‘야엘의 발 사이’로⁴⁹⁾ 이 문구가 1행과 2행의 맨 앞에 나와 시스라의 처지를 더욱 조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발 사이에’라는 구문은 신명기 28:57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으로 출산의 상황에서 사용되었다.⁵⁰⁾ 이런 용례를 볼 때 시스라가 여성의 발 사이에 쓰러져 있는 모습은 사산된 아기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 한편 가나안 장군의 끊임없는 쓰러짐과 죽음의 반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듣고 들어도 좋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글로베는 이것에 대해 “승리한 민족의 의기양양함이 배어있는” 구절이라고 하였다.⁵¹⁾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쁨과 환희를 가져온 인물이 바로 야엘이다.

이렇게 노래의 화자인 드보라는 내러티브의 화자가 평가하기를 유보한 야엘의 행동을 축복받을 행동이라고 평가하여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야엘은 비록 이방인이고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적인 가나안 장군을 죽인 영웅이다. 쿨레이는 야엘을 ‘하나님의 조력자’라고 아주 적절하게 평가하였다.⁵²⁾ 그러므로 야엘에 대한

48) ABCD/ABC/BCG의 패턴을 갖는다. 그리고 ‘שָׁבַב נָפֶל כָּרַע’는 주로 죽음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이다(왕하 9:24; 사 65:12; 시 20:9; נָפֶל 삼상 4:10; 삼하 1:19, 27; 시 20:9; שָׁבַב 신 31:16; 사 43:17; 겔 31:17; 32:27).

49)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등 대부분 ‘그녀의 발 앞에’로 번역되었으나 ‘그녀의 발 사이’가 정확한 번역이다.

50)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개역개정』

51) Globe, “Judges 5:27,” *VT* 25 (1975), 364.

52) *Ibid.*, 103.

평가가 내러티브와 노래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에서는 야엘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야엘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드보라가 노래에서 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4. 나오는 말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무시되거나 악녀나 살인자, 사기꾼으로 평가되던 야엘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야엘을 부정적인 평가를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이 남성 장군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한 남성 해석자들의 거부감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사사기 3장에서 에훤이 에글론 왕을 몰래 죽인 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이 훨씬 많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들을 붙여 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적장, 그것도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 대장군을 죽이고 도 성서 해석자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 받은 인물은 아마도 야엘이 유일한 것 같다. 하지만 사사기 4-5장을 통일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엘은 용기 없는 바락을 대신해 용감하게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그러므로 야엘은 이제 악녀가 아닌 영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주요어>

야엘, 드보라의 노래, 인물 묘사, 시스라, 사사기 4장, 사사기 5장

<Key Words>

Jael, Song of Deborah, characterization, Sisera, Judges 4, Judges 5

참고문헌

-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박운선, 『성경주석,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서울: 영음사, 1976.
- 스텍, 존 H., 『구약 신학: 본문과 해석』,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 Assis, E., "The Choice to serve God and assist his people: Rahab and Yael," *Biblica* 85 (2004), 82-90.
- Bal, M.,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8.
- Block, D. I., *Judges, Ruth*,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9.
- Boling, R. G., *Judges*, AB, Garden City: Doubleday, 1975.
- Bronner, L. L., "Valorized or Vilified?: The Women of Judges in Midrashic Sources,"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Judg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72-95.
- Fager, J. A., "Chaos and The Deborah Tradition," *QR* 13 (1993), 99-132.
- Fewell, D. N. & Gunn, D. M., "Controlling Perspectives: Women, Men, and the Authority of Violence in Judges 4 & 5," *JAAAR* 58 (1990), 389-411.
- Globe, A., "JUDGES V 27," *VT* 25 (1975), 362-367.
- Gray, J., *Joshua, Judges and Ruth*, NCBC, Grand Rapid: Eerdmans, 1986.
- Hengstenberg, E. W., *History of the Kingdom of God under the Old Testament*, 2, Edinburgh: T&T Clack, 1872, 31.
- Klein, L. R.,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JSOTsup. 68, Sheffield: Almond Press, 1988.
- Lindars, B., *Judges 1-5: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A. D. H. Mayes, ed., Edinburgh: T. & T. Clark, 1995.
- Logan, M. A., *Gender, Literary, Characterization and History: Re-Writing the stories of Deborah and Jezebel*,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 Matthews, V. H.,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TB* 21 (1991),

13-21.

- Matthews, V. H., *Judges and Ruth*, New York: Cambridge Uni. Press, 2004.
- Matthews, V. H., *Murder and Difference*,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1988.
- Murray, D. F., "Narrative Structure And Technique in the Deborah-Barak Story(Judges IV 4-22)," Emerton,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VTS 30, Leiden: E. J. Brill, 1979, 155-189.
- Niditch, S., "Eroticism and Death in the Tale of Jael," Day, ed., *Gender &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43-57.
- O'Connell, R.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E. J. Brill, 1996.
- Oesterley & Robinson, *The History of Israel*, 1, London: Oxford Univ. Press, 1932.
- Pressler, C., *Joshua, Judges and Ruth*,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Rainey, A. F. & Notley, R. S., *The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Jerusalem: Carta, 2006.
- Reis, P. T., "Uncovering Jael and Sisera: A New Reading," *JSOT* 19 (2005), 24-47.
- Schneider, T. J., *Judges, Berit Olam*,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Soggin, J. A., *Judges*, OTL, J. Bowden, trans., London: SCM Press, 1987.
- Walke, B. K. &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 Wolf, R., *Judge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 F. E. Gaebelin,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Yee, Gale A., *Judges & Method: New Approchi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Zakovitch, von Yair, "Sisseras Tod," *ZAW* 93 (1981), 364-374.

<초록>

야엘은 악녀인가 영웅인가?

-사사기 4-5장 연구-

박유미

(총신대학교 강사, 구약학)

본 논문의 목적은 사사기 4-5장에 나오는 야엘 인물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무시되거나 왜곡되었던 야엘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다. 야엘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내러티브 접근법을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인물 묘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야엘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야엘이 성스러운 법인 환대법을 어긴 부도덕한 여성이란 평가에 대해 환대법을 성스럽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야엘의 속임을 다시 평가하였다. 둘째는 야엘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 성적으로 해석되는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구약 본문 안에서의 용례들을 살펴 성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2장에서는 사사기 4장의 야엘 인물 묘사로 야엘이 지혜롭고 용감하게 적장 시스라를 죽여 드보라의 예언을 성취하였고 바락을 부끄럽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야엘을 가장 축복 받은 여성이라고 찬양하며 전쟁의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야엘은 이방인이고 여성이지만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다.

<Abstract>

Is Jael a wicked woman or heroin?

Dr. Youmee Park
(Chongshin Univ.)

This thesis evaluates Jael, who has been ignored and misunderstood, in a new perspective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Jael in Judges 4-5. Narrative approach will be employed, especially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characters.

The chapter one deals with Jael's morality. It has been thought, at first, Jael violated the law of hospitality, which many scholars regard as a holy law. However, hospitality may not be related to a holy law in the Old Testament. In addition, Jael's action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of a battle. Secondly, Jael has been considered as a person whose sexual behavior is not noble. But, in respect of the lexical meaning of the related words and of the examples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Jael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Sisera in Judges 4-5.

The next chapter consists of two sections. According to the first one, Jael killed Sisera wisely and bravely, and eventually she fulfilled Deborah's prophecy and made Barak ashamed. This fact can be shown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Jael.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function of Deborah's Song can be seen as introducing Jael as one of the most blessed women and as a heroin of the YHWH war.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Judges 4-5 describes Jael as both a friend of Israel and a helper of YHWH in His war, not as either a liar or an immoral woman, even though she is a foreign woman.